“마음으로 보라”… 어린왕자, 화두를 던지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⑥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전인 〈어린왕자〉는 총 3차례에 걸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프랑스에게 제작된 애니메이션 〈어린왕자〉의 스틸컷. 어린왕자가 여우를 만나는 장면이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동화적인 소설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다. 이것은 문장이 시적인 서정성과 리듬감으로 물결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저자가 책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어른들이 깊은 생각으로 삶을 반추하여 어린 왕자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이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 즉 육안(肉眼)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구경(究竟)에는 나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자전적인 체험소설이다.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난 생텍쥐페리는 1, 2차 세계대전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초창기의 비행기 조종사이다. 그는 두 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생명의 본질을 깊이 생각했다. 당시 시속 100km라는 느린 비행속도는 공중에서 지상의 사물들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지녔던 평면적인 안목과 사고가 입체적이고 수직적인 인식으로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되었다. 여기에 불안전한 기계로 설비된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비행 노선을 개척하느라 7000m의 높은 산맥을 넘고 때론 광활한 사막을 지나며 수없는 죽음과 대치하면서 인간의 한계상황과 이것을 뛰어넘는 정신세계를 자각하게 되었다. 생텍쥐페리는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남방 우편기〉 〈야간비행〉 〈인간의 대지〉 〈전시조종사〉 〈어느 인질에게 보내는 편지〉 〈어린왕자〉 〈성채〉등의 작품을 남겼다.

특히 〈어린왕자〉는 생텍쥐페리가 사하라사막에 불시착하여 부서진 비행기와 식수 부족 그리고 고독감으로 죽음과 대치하는 가운데 구출되는 극적인 체험을 통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자각의 체험기이다. 그런데 이 체험 소설에는 서양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닌 동양의 직관적인 사유의 불교 사상이 담겨있다. 이것은 생텍쥐페리가 인간의 마음을 중요시하고 그것에 모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체의 모든 형상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 마음의 투사를 그림자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사상과 일치한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삼라만상 일체가 분별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라는 불성(佛性)을 증득함으로써 생과 사를 초극하게 된다.

이것은 직관적인 인식, 즉 개오(開悟)의 경지에서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텍쥐페리는 어떻게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었을까? 그는 명상을 통하여 직관의 경지에 이르렀다. 생텍쥐페리의 비좁은 조종실은 비행을 수행하는 장소인 동시에 명상의 장소였다. 그의 명상은 보통 사람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공간 속에서 죽음과 대치하는 고독한 구도자의 삼매라고 할 수 있다.

깊은 명상의 체험 속에서 모든 두뇌작용과 인지작용이 정지되면 일체가 개념적인 사고를 거치지 않고 그냥 경험된다. 그 순간, 내부로부터 관조가 가능하여 고공비행을 하면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지상세계의 진면목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고공과 저공을 넘나들면서 비행하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사물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현실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참모습을 조망하게 된다.

이것은 불교의 선(禪)과 같은 경지이다. 생텍쥐페리는 깊은 명상을 통하여 우주의 실상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행동과 사고, 꿈과 사고의 분리를 거부했으며 이 몽상의 흔적은 그의 모든 작품 속에 어김없이 나타난다.

〈어린 왕자〉도 예외는 아니다. 생텍쥐페리는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과 갈증과 고독으로 인하여 심신이 완전히 탈진하여 절대적 한계 상황에서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들어 가사상태에 이르렀다. 인간은 이러한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 쓰고 살았던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원초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그 순간은 모든 감각기관이나 두뇌 작용을 통한 인식은 정지 상태에 이르며 의식의 주체는 깊은 무의식 세계로 빠져든다. 그리고 존재의 실상은 이 순간에 드러난다. 생텍쥐페리가 무의식의 심층에 빠져들었을 때 어린왕자가 그를 깨웠다. 생텍쥐페리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적었다.

“나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나는 눈을 비볐다. 나는 주의 깊게 살폈다.”

이때 생텍쥐페리가 벼락에 맞은 것처럼 놀라 일어났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 표면의식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을 넘어 더 깊은 초의식으로 나아간 것이다. 생텍쥐페리가 눈을 비비고 자세히 바라보는 순간은 무의식 세계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 순수세계와 합일하여 존재의 실상을 보는 순간이다. 그때 나타난 어린왕자는 생텍쥐페리의 심층에 숨어있던 진아(眞我)가 드러난 것으로, 곧 자신의 화신(化身)이다.

어린 왕자와 생텍쥐페리와의 대화는 선문답(禪問答)이다. 선(禪)이란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 그 자체를 직시하여 내부의 실체를 바로 보는 것이다. 즉 의식의 껍질을 벗고 마음의 눈으로 실상의 진여를 아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어린 왕자〉는 ‘마음’에 관한 화두를 독자에게 수없이 안겨주지만 그 중 몇 개만 살펴본다.

생텍쥐페리의 자전적 체험 소설
조종사와 어린왕자 선문답 ‘눈길’
인식 한계 · 근원에 대한 질문 던져

코끼리 삼킨 보아뱀 · 상자 속 羊 등
禪的 기제들 ‘心眼으로 보라’ 강조
구도 마친 어린왕자, 자기 별 귀향
육신 벗어나 정각 이룬 선지식 흡사

비행기 조종사는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의 부탁에 병들고, 뿔나고, 늙은 양을 그려준다. 이것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양들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오래 사는 양을 갖고 싶다고 한다. 즉 어린 왕자는 사고(四苦)를 해탈하여 변하지 않는 불성이 깃든 양을 요구한 것이다.

생텍쥐페리가 이번에는 작은 구멍을 뚫은 네모 상자를 그려서 양이 그 안에 있다며 건네준다. 그러자 어린왕자는 자기가 원했던 그림이라면서 “저런 양이 잠들었네”라고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마음의 눈을 뜬 선지식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어린 왕자〉의 1장에도 나온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시절에 코끼리를 통째로 삼켜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그렸는데 어른들은 그림의 겉모습만 보고 모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어린 생텍쥐페리가 보아뱀의 안을 그리든 밖을 그리든 그림을 제쳐 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어른들은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육체적인 욕망이나 물질적인 것에 애착을 갖는다. 이러한 욕망이나 애착은 내가 존재한다는 망상 때문에 일어난다. 나라는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변하므로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인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아뱀 안에 있는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외형이 실체인 줄 알고 살아간다.

〈어린 왕자〉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어린 왕자와 여우와의 만남이다. 여우가 주는 교훈은 ‘관계를 맺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망각한 존재의 근원을 찾는 가르침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화엄의 세계라면 ‘마음으로 보는 것’은 내면으로 침잠하여 불성의 세계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우는 ‘잘 보려면 오직 마음으로 봐야 잘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심안(心眼)으로 보는 것이다. 육체에는 실제적인 나(我)가 없는데 육신의 눈으로 만물을 보고 파악하는 것은 허상이 허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의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나(我)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마음의 눈은 무아(無我)의 상태에서 열린다. 이때 논리적인 언어는 사라지고 마음의 언어가 창출된다. 이것이 바로 우주와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며 원형의 소리가 피어나는 것이다. 존재의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열된 언어를 초월하여 마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꽃과 뱀과 여우를 비롯하여 모든 자연물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범아일여(梵我一如)의 마음 때문이다. 그중 여우와의 대화에서 여우는 어린왕자에게 언어의 모순과 불완전성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언어는 오해의 원천”이라고.

의식을 초월한 무아의 상태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논리적 언어와 관념의 허구성은 자연스럽게 파기되어 있는 그대로의 불성을 그대로 보게 된다.

생텍쥐페리는 사막에서 비축해둔 물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갈증으로 죽게 되어 우물을 찾아 나서면서 어린 왕자에게 너도 갈증이 나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 있잖아요”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한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한 곳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대도시가 아니라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이다. 이런 사막을 벗어나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갈증과 고독, 공허와 침묵을 몸소 겪으며 이겨 내야한다. 사막은 모래가 펼쳐진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닌 번뇌와 탐진치(貪瞋痴)의 삼독을 안고 살아가는 일상의 한복판이면서 또한 명상을 하고 의식을 고양시키는 구도의 장소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생텍쥐페리가 사하라 사막에서 찾은 우물은 도르래와 두레박이 달린 마을의 우물이었으나 놀랍게도 마을은 없었다. 우물은 언제나 마을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눈 뜬 장님처럼 우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우물은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있다. 우물은 내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지만 자아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외부에서 그것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물은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고 마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모든 생명은 목숨을 잃게 된다. 물은 생명이다. 물은 바로 불성(佛性)이다. 진여(眞如)는 의식의 껍질을 벗고 마음의 때를 벗겨 심안(心眼)이 열릴 때 오롯이 드러난다.

생텍쥐페리가 이와 같이 어린 왕자를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한 것은 그가 어린 시절로의 회귀를 열망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린 시절에 근원을 두고, 그 뿌리는 더 깊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탯줄로 이어진 우주와의 합일이며, 자의식이나 개체의식이 생성되기 이전, 전체의식으로의 회귀이다. 유(有)와 무(無)의 분별이 없는 절대무(絶對無)의 진공(眞空), 이곳에 생과 사의 분별은 없다. 현상계의 모든 상대성을 벗어난 절대 무애한 경지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이다.

어린 왕자는 〈화엄경〉의 선재동자처럼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찾는 구도(求道)의 여행을 마치고 존재의 근원인 그의 별로 돌아간다. 생텍쥐페리 역시 죽음을 통하여 생사를 초월한 해탈의 경지를 보여준다. 1944년 5월 31일, 그는 약속 받은 5회보다 더 많은 8회 출격을 마친 상태였지만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나간 마지막 정찰 비행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산화(散華)했다.

“나는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어린 왕자의 말처럼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육체의 옷을 벗은 진여의 생텍쥐페리를 다시 바라본다.



송마나 수필가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80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개인상담 및 공 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청강 후 등록 가능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